

■ 주요 뉴스: 미국, 반도체 등 주요 전자제품 상호관세 제외, 다른 형태의 관세 부과될 전망

- EU 재무장관회의, 역내 협력 강화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할 방침
- S&P, 이탈리아 신용등급을 BBB+로 상향. 경제금융의 완충 기능 개선을 반영
- 중국, 4/4일부터 희토류 수출 제한. 시진핑 주식은 금주 동남아 순방 시행

■ 국제금융시장(주간): 미국은 관세 관련 다양한 발표 등이 영향

주가 상승[+5.7%], 달러화 약세[-2.8%], 금리 상승[+50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상호관세 90일 유예 발표 등으로 큰 폭 상승
유로 Stoxx600지수는 미국 관세로 인한 유럽 경제 피해 우려 등으로 1.9%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3월 생산자물가의 상승세 둔화, 향후 경기불안 등으로 하락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3.6%, 2.4%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무역마찰 우려가 다소 완화되며 7주 만에 최고치
독일은 경기둔화 우려 지속 등으로 1bp 하락

※ 원/달러 환율(주간) 1.1% 상승, 한국 CDS 하락

		4/11일	4/4일	전주말대비			4/11일	4/4일	전주말대비
주가	미국	5,363.4	5,074.1	+5.70%	국채 금리 10y	미국	4.49%	3.99%	+50bp
	유럽	486.80	496.33	-1.92%		독일	2.57%	2.58%	-1bp
	중국	3,238.2	휴장	-3.11%		영국	4.75%	4.45%	+31bp
	일본	33,586	33,781	-0.58%	CDS 5y	한국	37bp	46bp	-9bp
	한국	2,432.7	2,465.4	-1.33%		중국	75bp	67bp	+8bp
환율	달러지수	100.10	103.02	-2.84%	위험 지표	EMBI+	429bp	425bp	+4bp
	유로화	1.1355	1.0956	+3.64%		VIX	37.56	45.31	-17.10%
	엔화	143.54	146.93	+2.36%		WTI유	61.50	61.99	-0.79%
	위안화	7.2921	휴장	-0.14%	원자재	구리	452.3	440.2	+2.75%
	원화	1,449.9	1,434.1	-1.09%		금	3,237.6	3,038.2	+6.56%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반도체 등 주요 전자제품 상호관세 제외. 다른 형태의 관세 부과될 전망

- 미국 관세국경보호국은 총 20개 전자제품(스마트폰, 노트북,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메모리 칩, 반도체 제조 장비)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 이번 조치로 TSMC, Apple, 삼성전자 등이 관련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Bloomberg)
- 시장에서는 이번에 면제된 품목 가운데 중국산 수입품의 규모가 1000억달러에 이르러 최대 수혜국은 결국 중국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WSJ). 또한 전자제품의 가격 인상을 걱정하던 소비자들도 우려를 덜 것으로 기대
- 다만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유예 및 반도체 관세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14일에 있을 것이라고 밝혀 당국의 발표와는 다소 상이한 모습. 러트닉 상무장관도 이번 주요 전자기기에 대한 상호관세 면제는 일시적이며, 1~2개월 안에 반도체와 함께 다른 형태의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발언
-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상호관세는 면제되지만 반도체 관세는 적용된다는 의미라고 설명. 또한 핵심 전자제품의 경우 반드시 미국 내에서 생산되어야 하며, 이들 제품을 동남아시아에 의존할 수는 없다고 강조. 생산 시설이 미국으로 이전되도록 관세 모델을 적용할 것이라고 첨언
- 미국 무역대표부 그리어 대표 또한 상호관세에 포함되지 않는 일부 전자제품은 정부의 조사 이후 별도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언급. 해당 제품은 국가안보 관세 항목으로 분류되기에 상호관세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
- 한편 백악관의 피터 나바로 무역·제조업 고문은 일련의 상호관세 유예 결정이 즉흥적인 것이 아니며, 지금은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전개되고 있는 중이라고 주장. 또한 현재 EU, 영국, 일본, 한국, 인도 등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부연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단기적으로 물가상승 및 고용여건 악화 위험 존재

- 무살렘 총재는 단기 위험으로 인플레이션 상승, 고용여건 악화 등이 있으며, 이에 따라 당국에서는 이와 관련된 경제 지표에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 특히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 영향이 지속될 수도 있다고 지적

■ EU 재무장관회의, 역내 협력 강화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할 방침

- 재무장관들은 역내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방침에 합의. 또한 미국에 보복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강조. 미국의 관세 부과가 장기화되면 역내 경제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
- 한편, ECB의 샤론 도너리 은행감독위원장은 금융 충격 발생 시 비은행권에서 일반 금융기관으로 위험이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지적

■ S&P, 이탈리아 신용등급을 BBB+로 상향. 경제·금융의 완충 기능 개선을 반영

- S&P는 이탈리아의 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 상향 조정하고, 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제시. 이번 조치는 세계적인 역풍 가운데 이탈리아 경제 및 대외 금융부문의 완충 기능 개선, 재정 안정을 위한 노력 등이 반영되었다고 설명

■ 미국 백악관, 이란이 핵개발 포기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과에 직면

- 백악관의 래빗 대변인은 이란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이란의 핵무기 보유 금지라고 강조. 또한 외교를 믿지만, 관련 노력이 실패하면 모든 선택사항이 고려될 것이라고 강조

■ 중국, 4/4일부터 희토류 수출 제한. 시진핑 주석은 금주 동남아 순방 시행

- NYT에 따르면, 당국은 4/4일부터 6종의 희토류에 수출허가제 시행. 수출허가 취득에 최소 45~60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관련 산업에 공급 차질을 초래할 소지. 한편 시진핑 주석은 이번 주 동남아 3개국을 방문할 계획. 이는 미국과의 무역마찰 대응을 위한 주변국과의 관계 강화 노력으로 해석

■ 일본은행 조사, 1년 및 5년 기대 인플레이션 모두 상승. 식품가격 상승 등이 영향

- 3월 소비자 조사에서 1년 후 인플레이션(연율)이 오를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86.7%로 전월(85.7%) 대비 상승했고, 이는 작년 6월 이후 최고치. 5년 후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것으로 응답한 비율도 83.5%로 작년 9월 이후 최고 수준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4/14 현지시각 기준)

- 연준 월러 이사, 필라델피아 연은 하커 총재 및 애틀랜타 연은 보스틱 총재 발언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경제 전망, 트럼프 취임 3개월 만에 경기침체 가능성 고조 - WSI

(Economic Outlook Dives Just Three Months Into Trump's Term)

- 최근 설문조사(WSI, 64명 경제학자)에서 상호관세 등 트럼프의 예상보다 강력한 관세 부과로 올해 GDP성장률이 0.8%(vs. 1월, 2%)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 이는 팬데믹 당시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었던 '20년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가 될 가능성. 또한, 향후 12개월 동안 경기침체 진입 확률이 45%로 상승했다고 추정(vs. 1월, 22%)
- 아울러, 주가 하락, 채권금리 상승, 소비자심리 악화,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트럼프發 불확실성 증폭, 성장률 감소 및 인플레이션 상승 예상, 불투명한 연준 금리인하 전망 등이 존재. 이러한 상황은 소비자의 심리 및 지출, 기업의 고용 및 투자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경기침체 현실화 가능성을 높일 우려

■ 미국 국채 장단기 금리차 확대 지속, 안전자산 위상 악화 등에 기인 - 블룸버그

(Bond Market's Steepener Bet Gets Turbocharged Amid Tariff Mayhem)

- 트럼프發 무역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장기물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30년물과 2년물 금리차는 9주 연속 확대. 이는 시장 혼란기에도 국채의 안전자산 지위가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 트럼프 관세가 글로벌 투자자들의 국채 수요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반영. 또한 감세 추진에 따른 재정적자 증가 가능성도 영향
- 반면 단기물 금리는 금리인하 기대로 상승이 제한적(선물시장에서는 연내 3회의 25bp 금리인하 전망을 시사). 향후 3~6개월 국채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며, 금리인하 기대에도 재정적 우려가 장기물 금리의 상승 압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

■ 미국과 중국의 무역 휴전, 중국의 다양한 공수(攻守) 옵션 보유로 요원 - 블룸버그

(Trump-Xi Truce Appears Elusive as China Prepares to Dig In)

-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관세와 보복관세의 반복으로 격화. 고율 관세로 결국 중국이 협상을 먼저 제안할 것이라는 백악관 기대와 달리, 중국은 관세 부당성을 비판하고, 상호 이익에 대한 긍정적 합의가 아니면 협상하지 않겠다는 입장
- 이는 미국 영화 수입 제한 등 서비스업 분야로의 무역전쟁 확대, 위안화 약세 용인, 미국채 매각, 여타국과의 무역관계 강화 등 중국이 다양한 견제 수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 아울러, 중국 정부는 성장 촉진을 위한 경기부양책 등으로 무역 충격에 대비. 이에 트럼프의 시진핑과 양자 협상에 낙관적 견해 표명은 객관성이 결여

- **미국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 자국 경제에 이익이라는 통념에 균열 - Financial Times**
(The US would be better off without the global dollar)
 -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는 미국 경제에 국제적 영향력을 부여하지만, 동시에 과도한 개방성과 대외 불균형 수용이라는 구조적 부담도 초래. 다른 국가가 무역·자본 흐름을 통제해 내부 불균형을 조절하면, 그 부담은 더 개방적인 국가에 전가되며, 이는 무역갈등을 심화시키는 ‘근린궁핍화’를 초래
 - 실제로 미국은 무역적자라는 구조적 불균형을 겪는 상황. 이에 달러화 패권이 제조업 및 농업에 비용 증가를 유발하여, 자국에 이롭다는 통념에 의문이 제기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자국 정책의 대외 영향을 인식하고, 국제적 수요·공급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합의가 요구. 만일 합의가 어려울 경우, 미국의 일방적 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
- **미국의 관세에 따른 혼란, 의회 개입 없으면 지속될 전망 - 블룸버그**
(Tariff turmoil will continue unless congress steps in)
- **미국의 트럼프 경제 불안정적 위험 증가, 신흥국형 위험 초래할 소지 - Financial Times**
(America the Unstable)
- **신흥국 경제·정치적 격변 및 시장 변동성, 트럼프 무역전쟁으로 증폭될 우려 - 블룸버그**
(Emerging Markets Face ‘Wrecking Ball’ From Tariff Turmoil)
- **중국의 내수 잠재력·기술자립 제고, 트럼프 무역전쟁에 맞대응 가능 - Financial Times**
(China is well positioned to weather Trump’s trade war)
- **러시아, 유가 하락으로 경제 하방 압력 및 전쟁 자금 조달 어려움에 직면 - Financial Times**
(Vladimir Putin’s war chest under threat as oil prices sl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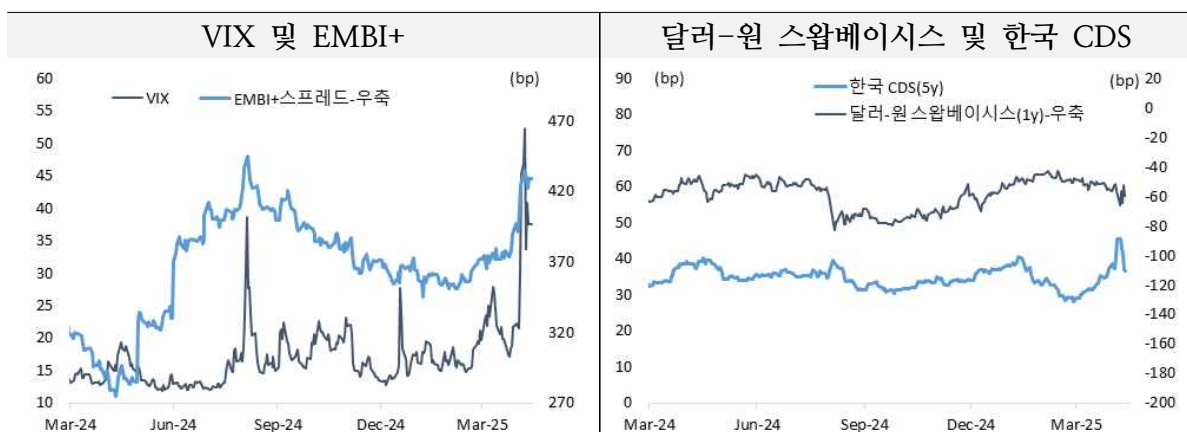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